

국내 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착 단계에 따른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Foreign Faculty Members during Their Settlement Stages at Korean Universities

오경한 (Kyunghan Oh)**

김 건 (Geon Kim)***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착 단계별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행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8명의 외국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결정적 사건기법(CIT)을 활용한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을 통해 출국 전, 초기 정착 단계, 현재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중요하거나 어려웠던 사건을 중심으로 정보요구와 정보원 활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참가자의 정보요구는 출국 전에는 한국 문화, 직장, 일상 등의 일반적인 정보요구가 있었으나, 정착 단계를 거쳐 현재에는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정보요구로 변화하였다. 둘째, 참가자에게 외국인 친구·동료가 중요한 정보원이었으나, 자녀 교육, 연구 신청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경험이 필요했으며, 외국인 네트워크 유무에 따라 정착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언어 장벽, 웹사이트 문제, 직장 문화 등이 정보탐색의 장애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교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행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foreign faculty members at Korean universities across different settlement stages. The research employed semi-structured interviews using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CIT) with eight foreign faculty members. Through interviews, the researcher examined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ource utilization by dividing the settlement process into three stages: pre-departure, initial settlement, and current stage focusing on significant or challenging incidents at each stage. The findings revealed three key points. First, participants' information needs evolved from general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e, workplace, and daily life during pre-departure to more specific and personal needs based on individual interests in the current stage. Second, while foreign friends and colleagues served as crucial information sources, Korean experiences were necessary for specific matters such as children's education and research grant applications. The presence of foreign networks also influenced the length of settlement periods. Third, language barriers, website accessibility issues, and workplace culture emerged as major obstacles in information seek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foreign faculty members'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suggesting improvements for information services dedicated to this group.

키워드: 외국인 전임교원, 정보요구, 정착단계별, 정보추구행위, 정보원
foreign faculty members, information needs, settlement stage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sources

*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oh.khan0608@gmail.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기록관리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소장(godardkim@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4년 11월 13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12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12월 6일

■ 정보관리학회지, 41(4), 101-122,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4.101>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교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수용하여 외국인 교원 채용과 영어 강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제적 경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 전임교원은 전체 교원의 5.2%를 차지하고(교육통계서비스, 2024), 고등교육기관은 이들의 채용을 통해 대학 국제화 지표를 충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들은 외국인 교원의 학술 활동 저조, 대학 국제화 지표 달성을 위한 '숫자 맞추기식' 채용,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부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박나은, 2023; 송인영, 변기용, 2022; 이병식 외, 2019; 한송이, 신윤미, 2020).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한국 대학과 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인 전임교원은 직장 내 차별, 생소한 대학 시스템, 원칙과 리더십 부재, 연구비 신청의 어려움 등 직업적 도전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과 자국 문화와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비자, 주거, 금융 등 일상생활 정보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김일규, 2023; 심미경, 2014). 더불어, 외국인 교원이 한국에서 소외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이는 학문적 성과 저하와 더불어 직장 및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박나은, 2023; Ward & Kennedy, 1999).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교원이 직장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장애를 겪기 때문이고, 이는 정보 접근성과 지원 체계의 부족과도 관련이 깊다. Lloyd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얻은 기존 지식과 새로운 나라의 시스템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적응력을 키워간다. 그러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비공식 정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정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다(이수상, 장임숙, 2008; Lloyd, 2014; Lloyd et al., 2017). 외국인 전임교원의 성공적인 정착,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및 학문적 기여를 위해서는 정착 단계에서의 정보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물론, 각 대학과 국제 지원센터 등이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 추구 행위를 정착 단계별(입국 전 준비, 초기 정착, 현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정보요구와 정보 추구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이 한국 고등교육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 RQ1. 각 정착 단계에서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요구 특성은 무엇인가?
- RQ2. 각 정착 단계에서 외국인 전임교원이 정보를 얻은 정보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 RQ3. 외국인 전임교원은 정보탐색 경험과 검색 결과에 만족하는가?

2. 선행연구

외국인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외국인 전임교원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이민자, 유학생,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이수상과 장임숙(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는 임금 체불, 상해사고 등의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대인 관계를 통해 해결했다. 이주노동자는 보편 및 사회적 욕구인 한국어 교육, 생활 정보에 대한 요구 경험 이 높고, '참거나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문제 발생 시 국내 모국인 친구, 종교 단체, 직장 동료 및 상사, NGO 순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 모국 친구를 가장 선호한다고 제안했다. Fisher et al.(2004)은 미국의 히스패닉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신뢰성, 접근성, 친숙성, 의사소통 용이성 등의 이유로 대인 관계를 통한 정보추구를 선호했고, 자녀 숙제 지원, 영어문서 번역 및 법률 지원, 기술 습득, 타국에서 구입하기 힘든 모국의 물건 등의 이유로 CTC(Community Technology Centres)에 방문했다. 연구자는 히스패닉 문화의 특성으로 사회 서비스 수급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주요 정보기반은 교회, 학교, 직장이라고 하였다. 장임숙과 이수상(2009)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욕구 파악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무자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 의료, 교육, 정보, 사회문화 영역의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질병, 임금 체불, 의료 비용, 산업 재해, 언어 교육, 폭언 및 폭행,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주요 요구로 꼽았다. 특히 생활 정보와 언어 관련 요구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는데, 이는 언어가 정보 획득 및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2015)는 이주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언어장벽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기관 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도와줄 지인이 없으면 이주노동자는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민자의 정보추구행위에 대해서, Lloyd(2014)는 영어 소통이 어려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 2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건강 정보 환경에 대한 적응 경험을 조사하였다. 참가자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갭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에 적응하고 이를 지향하게 되었다. 난민에게 중요한 정보원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였고,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선호하였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파편적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참가자는 파편적 정보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신앙 집단이나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였

고, 참가자에게 커뮤니티는 정보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원으로 인식되었다. Lloyd et al.(2017)은 호주 이민자를 중심으로 사회 동화 및 배제 개념과 정보 빈곤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이민자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정보추구 전략과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은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배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민자가 정보 접근과 이해가 어려울 시, 정보 빈곤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 배제된 이민자는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내부 의존도를 높여 권력관계를 형성하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정보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민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 사회가 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보 접근 방식을 이해하며, 시기적절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hoham과 Strauss(2008)는 이민자의 정보요구 만족도와 이주국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민자는 모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면서 타국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를 탐색하였다. 또한 이주 후에 모국과 다른 주거 양식, 교육, 의료 등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공동체, 가족, 친구 등이 실제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주요 정보원이었다. Kennan et al.(2011)은 호주 이주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 정보추구행위와 사회적 포용의 관계를 조사했다. 난민 대상 프로그램인 HSS(The Humanitarian Settlement Program)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서비스 제공

자가 호주의 다양한 정보 환경, 법, 규율 등 사회 정보에 대해 난민을 교육하여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였다. 정착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상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추후에 난민이 스스로 정보요구를 인식, 탐색,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는 지속적인 지원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이끌고, 난민이 공식 정보원을 신뢰하게 하며, 새로운 정보 환경과 비판적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주국 정착 직후와 정착 6개월 이후가 신뢰 관계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정원(2021)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 정보요구와 정보탐색 행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학생은 주로 일상생활 관련 정보요구가 높았고, 정착 초기와 현재 단계에서 정보요구가 입국 전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유학생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였고, 특히 초기 정착 시 선배나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언어 장애가 정보탐색에 큰 어려움이었다고 지적했다. Yoon과 Chung(2017)은 미국 유학생의 정착 단계별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위를 살피고 있다. 입국 전에 참가자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할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요구는 구체적으로 변하였고, 인터넷 정보탐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가 높아졌다. 유학생은 주로 일상생활 정보요구가 많았고, 정착 초기에는 모국 친구와 인터넷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였고, 점차 소셜미디어 이용이 늘었다. Sin과 Kim(2013)은 유학생의

일상생활 정보요구가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추구행위를 통해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 유학생의 주요 정보요구는 금융, 건강, 모국 이슈, 주거, 오락, 식음료, 교통, 대인 관계, 미국 문화, 법률 등이었고, 유학생의 97%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학생은 평균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정보가 일상생활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소셜미디어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추구전략이 문화 간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제안하였다. Mehra와 Bilal(2007)은 대학원 유학생의 정보요구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추구행위를 연구하였다. 유학생은 학업, 일상생활, 미국 문화, 연구 과정, 비자, 언어, 재정, 주거 및 건강, 휴가 등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학생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인터넷 검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다중 언어 인터페이스 부족, 영어 검색 기술 및 어휘 부족, 비판적 사고 부족, 정보 과잉 및 관련성 낮은 검색 결과 등의 문제가 있었다. Jeong(2004)은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한국인 유학생 및 배우자 8명을 대상으로 정보추구행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참가자는 주류 미국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였고, 언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문, 방송, 여행 등을 멀리하여 미국 사회에서 단절되었다. 대신 한인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만, 이는 오히려 언어 학습과 미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발탁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연구자는 교회 내 인종적 결속, 정보 및 일자리 제공, 과도한 친절 등이 유학생들의 미국 사회 적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외에서는 이주노동자, 난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요구와 정보 추구 행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들 집단은 공통으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의 부족, 사회 시스템 적용의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비공식 정보원인 모국 친구, 종교 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요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정보 추구 과정에서 어떤 장애 요인을 겪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와 난민 연구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의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이는 외국인 전임교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학생 연구는 정착 단계별로 정보요구가 구체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요구도 직업적·개인적 요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국인 전임교원은 이와 같은 외국인 집단과 달리, 전문성과 직업적 특수성을 지닌 직군으로, 이들의 정보요구는 그 직업적 성격에 맞춰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외국인의 정보추구행위의 특성을 참고하여, 외국인 전임교원의 직업적 특수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정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전임교원이 대학교와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연구자의 지인과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교원 연락처, 학과 조교,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구 및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을 영어로 작성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이후에 참가자가 주변 지인을 추천하여 추가로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참가자는 총 8명이었고, 인터뷰 전에 연구자 소개와 연구 목적을 영어로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조교를 통해 전달하였다. 인터뷰 참가 의사를 밝힌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된 질문지를 미리 배포하여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에는 참가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나이, 성별, 출신 국가, 배우자 유무, 한국 거주 기간, 최종 학력, 비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와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참가자의 거주지나 연구실에 방문하였고,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인종적 소수자이고 계약직인 관계로, 솔직한 경험을 털어놓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였고, 이에 참가자도 동의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했고, 인터뷰 방법은 유학생의 정착 단계별 정보추구행위 연구에서 사용한 Yoon과 Chung(2017)의

결정적 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을 참고하였다. 결정적 사건기법은 “중요한 경험(또는 연구주제에 따라 주어진 기준에 맞는 경험)에 관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참여자로 하여금 관련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Yoon & Chung, 2017). 또한, 참가자가 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할 때 경험했던 일을 더 개방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용하여(Shoham & Strauss, 2008),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참가자가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텍스트로 전사한 후,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인 Taquette¹⁾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뷰에서 도출된 주요 사건과 정보를 일상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범주를 세분화하여 정보요구, 정보원, 장애요인이라는 하위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본국의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는 진술은 ‘1.출국전_경험_일상’과 ‘1.출국전_정보요구_떠날 준비’라는 두 개의 태그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출국 전, 초기 정착, 현재의 각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한 주요 사건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고, 정보요구와 정보 추구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였다.

연구자는 (1)출국 전 단계, (2)초기 정착 단

1) Taguette(<https://app.taguette.org/>)는 Python과 Tornado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성적 연구 도구이다. Taguette는 단어, 문장, 단락을 하이라이트하고 사용자가 생성한 코드로 태그 지정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Rampin & Rampin, 2021).

계, (3)현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참가자에게 단계별로 중요하거나 어려웠던 사건을 기억하게 한 뒤, 그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했던 정보, 정보추구를 위해 사용한 정보원, 정보탐색의 장애요소, 찾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 8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참가자는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임 교원으로 총 8명(남성 4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한다. 참가자 중 6명은 배우자가 있고, 1명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자녀(6세)가 있다. 참가자의 출신 국가는 아일랜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으로 다양하고, 한국어 능력은 3명은 초급(beginner)이고, 참가자 5명은 낮은 중급(low intermediate) 수준이라고 직접 밝혔다.

4. 결과분석

참가자의 국적만큼이나 개인별로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된 참가자 5명은 한국에 처음 입국할 때 그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제출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적어 그에 대한 정보요구나 정보추구행위가 적었다. 또한, 참가자 중 7명은 3년 정도의 국내 학원 근무 경력이 있었고, 현재는 모든 참가자가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자 중 5명은 현재 근무하는 대학교 이외에 2곳 이상의 다른 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참가자 4는 장기 거주비자인 F2-99²⁾ 비자를 취득하고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2급을 취득하였다. 참가자 5는 박사 학위를 가졌고, 개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참가자 8은 본

<표 1>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No.	나이대	성별	국적	배우자 유무 (자녀 수)	한국 입국시기	학력	비자	한국어
S1	30	남	아일랜드	없음(0)	2017	석사	E2	초급
S2	40	여	미국	별거(1)	2006	석사	E2	중급
S3	50	여	뉴질랜드	있음(0)	2004	석사	E2	중급
S4	40	남	미국	있음(0)	2007	석사	F2-99	중급
S5	40	여	캐나다	있음(0)	2007	박사	E1	초급
S6	30	여	독일	있음(0)	2021	석사	E1	중급
S7	40	남	캐나다	없음(0)	2004	학사	E1	중급
S8	30	남	미국	있음(0)	2015	박사	F6	초급

2) E-1(교수)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를 위한 비자이고, E-2(회화지도)는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정부초청 보조교사에게 주는 비자이다. F-6(결혼)은 국민과 혼인한 사람에게 주는 비자이고, F-2-99(장기체류자)는 E-1과 E-2 등의 비자를 소유하고 한국 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생계유지요건, 기본소양요건(한국에서 초중고 졸업, 대학, 대학원, 기능대학 중 하나 졸업, 사회 통합 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검정고시 합격,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중 1개 만족)이 갖춰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배우자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 구직을 하였다. 참가자 6은 교포 출신의 배우자가 있고, 외국 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참가자 6은 코로나 시기에 한국 대학교 근무를 시작하였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참가자 중 5명은 한국 입국을 준비할 때, 인터넷 환경이 비교적 발전하지 않았고, 참가자 1, 6, 8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탐색이 수월한 환경에서 입국을 준비하였다는 시기적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4.1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행위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출국 전, 초기 정착 단계, 현재의 세 단계에서 중요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해당 경험과 관련하여 필요했던 정보, 정보원, 정보의 만족도, 정보탐색 과정에서 느꼈던 장애물 등을 차례로 질문하였다. 참가자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1.1 출국 전

한국에 오기 전, 8명의 참가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한국인 유학생 친구, 한국에 거

<표 2> 중요했던 혹은 힘들었던 경험

구분	일상	직장
출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생활 관련 검색 - 비자 발급 - 거주지 및 주변 인프라 - 코로나 당시 입국 절차 - 떠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 교육 프로그램 검색 - 직장 내외환경 - 한국 내의 직장 문화 - 행정 서류 - 자기소개 영상 제작
초기 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생활 - 거주지 - 의료시설 - 지리 정보 - 금융 거래 - 한국어 능력 필요 -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 - 비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문화 - 한국어 읽기 - 대학 시스템 - 좋은 직장 동료와 상사를 만남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 비자 발급 - 교육 시설 - 이태원 참사 - 코로나 출입국 절차 - 여행자 보험 - 주택 담보 대출 - 전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시스템 - 직장 문화

주하는 지인 및 가족, 신문, 대학가 한국식당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한국 내 구직이나 한국인과의 결혼 같은 사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비자 발급과 한국의 일상생활이라고 참가자 5명이 응답하였다. 한국의 일상생활 정보는 예를 들어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겪을 수 있는 상황, 무례하지 않은 방법, 원어민 강사의 일상, 데이트 방법, 외국인 커뮤니티, 전세와 월세 등이 있다[S1, 2, 3, 6, 8]. 참가자 3명은 채용 대행사를 통해 취업하였고, 대행사 직원은 참가자가 희망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물어서 한국 내 도시 규모, 인구, 주변 인프라 정보가 필요했다고 하였다[S3, 4, 5]. 그 외에도 한국 정착 준비보다 본국을 떠날 준비(본국 아파트 매매, 사업 정리, 학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가 더 중요했다는 응답도 있었다[S4, 7, 8]. 참가자 6은 코로나 때문에 입국 및 구직을 위해 코로나 추적 앱과 백신 접종 내역 등의 서류 정보가 필요했다고 답하였다[S6].

한국어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 교통, 근무 문화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나 데이트처럼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S2]³⁾

...한국에서 살기 위한 준비보다 집[본국]을 떠날 준비가 시급했어요...입대 계약 해지를 해야 했고, 사업 정리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S4]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참가자 3명은 근무지, 근무 조건, 근무 환경, 직장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하였다[S1, 2, 5]. 참가자 2명은 학위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S1, 3]. 또한 원어민 교육 프로그램인 EPIK(English Program In Korea)과 G-EPIK(Gyeonggi English Program In Korea)에 대한 정보[S1], 한국 학생과 교수의 상하관계, 동료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 문화의 차이점[S6]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였다. 참가자 1은 G-EPIK의 경쟁률이 높아서 고민하던 중에 한국의 원어민교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면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상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자 하였다[S1].

빠른 채용을 위해서 유튜브에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S1]

한국과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동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의 위계질서가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S6]

참가자가 활용한 정보원은 대행사 직원[S1, 2, 3, 4, 5], 한국인 친구[S3, 4, 5, 6], 여행 서적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S2, 3, 4], 대사관[S3, 7, 8], 개인 블로그[S2, 3, 8], 가족[S6, 7], 한국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S6], 위키피

3) 본 논문에 명시된 인용문은 연구자가 영어로 전사된 참가자의 대화 내용을 직접 번역한 것이다.

디아[S4], 한국에 사는 지인 [S7], 유튜브[S1]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참가자 5명은 대행사 직원을 통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가족, 개인 블로그, 유튜브, 지인과 같은 비공식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만족하거나 유용했다고 답하였지만, 론리플래닛, 대사관, 한국 정부 홈페이지 등의 공식 정보원은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다.

대행사 직원이 도시, 숙소, 휴가 일수, 시간표 등에 대한 제 질문에 대답해 줬어요...그분은 제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었어요. [S5]

한국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는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어요...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어디를 클릭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영어판 (한국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는 한글판 웹사이트보다 내용이 적고 최신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S6]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국 입국 준비 과정에서 외국인 전임교원이 활용하는 정보원의 특성과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 접근성이 낮았던 시기에 입국을 준비한 참가자 5명[S2, S3, S4, S5, S7]은 주로 대행사 직원, 가족, 지인과 같은 비공식 정보원이나 출판물에 의존했다. 이들은 당시 정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보 부족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진 시기에 입국을 준비한 참가자 3

명[S1, S6, S8]은 공식 정보원과 비공식 정보원을 병행하여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참가자 1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기에 대행사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참가자 8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여 주로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습득했다. 참가자 6은 가족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는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어서 출입국 웹사이트, 커뮤니티, 검색 포털 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여전히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저는 당시 적은 정보량에도 만족했어요, 만약 지금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거보다) 기대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았으면 그때 가졌던 수준의 정보만으로는 준비되지 않았을 거예요...지금은 완전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에 정보에 대한 기준도 훨씬 높아졌어요. [S3]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인터넷 접근성이 낮았던 시기에 입국한 참가자들은 주로 비공식 정보원에 의존하며 정보 부족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반면,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진 이후에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에 대한 기대치와 기준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준비할 때 가장 선호하는 초기 정보원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 지인, 대행사 직원이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충분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출판물 등의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접근성의 변화가 외국인의 정보 추구 행위와 기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가자 5명은 정보추구의 장애요인을 정보 부족[S2, 3, 5, 6], 언어[S5, 6, 8], 무지[S5]로 꼽았다. 참가자 2, 3, 5는 정보가 있었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고, 정보 부족이 흔한 일이었기에 개의치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참가자가 정보 통신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환경에서 한국 입국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가자 5, 6, 8은 영어 검색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원하는 정보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참가자 5은 자신이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어서...그게 첫 번째 장벽이었어요...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제 무지도 장애물이었던 거죠. [S5]

(영어로 된) 정확한 격리 규칙과 다운로드해야 하는 앱을 알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S6]

4.1.2 초기 정착 단계

연구자는 참가자 8명에게 한국에 정착했다고 느낀 시기를 질문하였다. 참가자 3명은 최소 2주에서 1개월 정도[S4, 5, 7], 참가자 4명은 2~3개월 정도[S1, 2, 3, 8], 그리고 참가자 1명

은 2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응답하였다[S6]. 정착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참가자 3명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동료나 가족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 8은 가족이 있음에도 정착 기간이 길었는데, 참가자는 그 이유를 배우자가 비자 및 구직 문제, 한국 문화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정착했다고 느낀 시기가 가장 길었던 참가자 6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 동료나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할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가족, 외국인 동료, 친구와의 소통을 통한 정보 추구가 외국인의 정착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동료가 자전거 수리점이나 식당 맛집 등을 알려줘서 정착이 쉬웠어요. [S4]

사촌과 함께 살아서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해결됐어요...당시에는 정보요구보다 문화를 흡수하는 데 집중했어요. [S7]

코로나 기간에 와서 온라인 수업만 했어요...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매우 고립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정착했다고 느낀 시기가 2년 6개월이 걸렸던 거 같아요. [S6]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일상, 직장생활에서 중요했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모든 참가자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답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한 정보는 기초생활 정보(주변 생활시설, 거리 이름, 교통시설 이용, 쇼핑, 음식,

외국인 손님 경험이 있는 미용실 등)[S2, 4, 5, 6, 7], 거주지(거주지 변경 가능 여부, 룸메이트 찾기 등)[S1, 3, 5], 의료시설 관련(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병원 위치 및 찾아가는 방법 등)[S1, 6], 금융 거래(인감 제작소 및 디자인)[S4], 한국어 능력 필요(한국어 교육 기관 위치)[S4],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과 커뮤니티 필요성[S6], 비자 발급[S8] 순으로 나타났다.

좋은 병원인가? 의사가 실력이 있는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정보는 검색으로 찾을 수 없었어요. [S1]

외국인 머리를 다룰 줄 아는 미용실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한번은 제 머리를 염색했는데 미용사가 외국인 머리를 잘 몰라서 오렌지색이 되었어요.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S6]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직접 해야 한다고 느껴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S4]

직장생활에서 요구한 정보는 직장 문화[S1, 2, 5, 6, 8], 한국어 읽기[S1, 3], 대학 시스템[S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직장 문화에 관해서는 관료주의, 질문을 불편해하는 문화, 동료 간 암묵적인 규칙과 소통 방식, 수업 방식, 학생과 교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또한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서 한국인 동료와 학생의 이름을 부를 때 어려움이 있기에 한글 읽는 방법을 요구하였고[S1, 3],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 시스템에 처음 접한 참가자는 강의 계획서 작성법, 교재 선정, 학생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S6].

학생들과 술자리에 가도 되는지, 문화가 다르기에 무엇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몰랐어요. [S2]

학생들 평가 방식이 나라별로 달라요. 한국에서는 낙제시키기가 해외보다 훨씬 어려워요. 유럽은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낙제하죠. [S6]

참가자의 주요 정보원은 외국인 친구·동료[S1, 2, 3, 4, 6, 7], 한국인 동료[S1, 2, 5, 6], 외국인 운영 블로그 및 웹사이트[S1, 2, 7], 페이스북 외국인 그룹[S1, 2, 4, 8], 가족[S6, 7], 출입국사무소 웹사이트[S4, 7], 직접 해결[S2, 7], 한국인 학생[S4], 판매자[S5], 학과 조교[S6]로 나타났다. 참가자는 특히 외국인 친구·동료, 외국인 운영 블로그 및 웹사이트, 가족, 학과 조교가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친구·동료는 참가자들의 정보요구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과 팁을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었다.

반면, 출입국 사무소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는 영어로 제작되었지만,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용하는 영어 단어로 글이 작성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고[S5], 최신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실제 정책과 사무소마다 운영 절차가 달랐다는 의견도 있었다[S7].

외국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지식을

공유했어요...수업자료를 주면서 “이걸 수업에서 해보세요”, “이건 효과가 좋더라고요”라고 도와줬어요. 처음으로 서울 여행을 갈 때도 동료들을 따라다녔어요. [S1]

동료는 캐나다인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하루 종일 학교 주변과 시내를 함께 거닐었어요...아파트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도 알려줬어요. [S3]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을 상대하는 출입국 사무소는 공용 영단어를 사용해야 해요. [S4]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는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아요...외국인 출입국 관련 정책과 실제 운영 절차가 아주 달라요. [S7]

몇몇 참가자는 주변 시설과 음식 관련 요구를 직접 해결하였다. 참가자 4는 도시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정보를 얻었고, 참가자2와 7은 매일 같은 식당에 방문하여 여러 음식을 시켜서 사진을 찍거나 메모했다고 하였다.

참가자 5명은 한국인과의 소통이나 한국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추구에 있어 언어장벽을 느꼈다고 응답했다[S2, 3, 5, 7, 8]. 반면 다른 3명의 참가자는 언어보다는 선입견, 소통 방식의 차이, 무지 등이 더 큰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S1, 4, 6].

F-6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D 도시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그곳 직원분들은 한국어만 소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S8]

언어 문제라기보다 제 피부색이 문제였어요.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하면 제가 외국인이라 당황해서 그런지 대화를 안 했어요. [S4]

언어장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한국인 동료는 영어를 잘했어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일에 관해 의사소통만 하면 됐는데, 그게 없었어요. [S1]

어려움이 있었다면, 제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조차 몰랐다는 데 있어요. [S6]

4.1.3 현재

참가자에게 최근에 겪었던 중요하거나 어려운 경험을 상기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경험과 관련된 정보요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자가 언급한 일상생활에서 정보요구는 의료 시설(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시설)[S1, 3, 6], 비자 발급(피해야 할 출입국 사무소, 다른 외국인들의 경험 사례)[S4, 7], 교육 시설(유치원 정보, 보모 정보, 다문화 가족 지원, 용접 교육 장소)[S2, 4], 이태원 참사(영어로 된 이태원 참사 관련 최신 기사 및 영상)[S3], 코로나 출입국 절차(출입국 시 필요한 서류, 한국의 출입국 정책,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사용 방법)[S3], 여행자 보험(상품 정보, 보험 어플리케이션 사용법,)[S4], 주택 담보 대출(외국인 대출 정책, 대출이 가능한 은행 등)[S4], 전입신청(수도/전기 명의변경)[S8]으로 나타났다.

주변 병원에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있어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해요. 남편없이 혼자 가야 한다면 무서울 거 같아요. [S6]

어떤 사정으로 유치원을 급하게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치원은 모집기간이 끝나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는 한국인 부모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했어요. [S2]

참가자는 직장생활에서 대학 시스템(펀딩 신청, 절차, 한국식 좋은 프로포절의 예시, 자료조사 및 접근, 대학 연구 지원금 절차, IRB 신청, 의대 학생의 데모로 인한 여름방학 연장수업 관련 정보 등)[S1, 3, 5]과 직장 문화[S6]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었다.

한국 대학의 연구비 신청 절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 제안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얻는 게 힘들었어요. IRB 승인도 어려웠어요. 대학교 직원들이 IRB가 무엇인지조차 몰랐거든요. [S5]

의대생 전체가 총파업한 상황이잖아요. 학교와 의대 모두 전례 없는 상황에서...결단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봐요. 결정을 내려도 다음날이면 바뀌어서 신뢰할 수 없었어요. 최신 정보를 아는 게 힘들었어요. [S3]

동료들이 저를 회식에 초대하지 않았어요...학과 조교를 통해 참석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 나를 초대 안 하는지, (모임에 대한) 정보를 왜 안 알려주는지 고민이 컸어요. [S6]

참가자들은 정보요구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다. 인터뷰 결과, 페이스북 외국인

그룹[all], 외국인 친구·동료[S1, 2, 3, 5, 6], 학과·행정 조교[S1, 3, 5, 6, 7, 8], 한국인 동료[S1, 2, 5, 6], 가이드북[S1, 2, 3], 국내 웹사이트[S3, 5, 6], 검색 엔진[S3, 5], 가이드북[S1, 2, 3] 출입국 사무소 직원[S3], 한국인 친구[S2], 대학 도서관 사서[S5], 가이드북[S1], 네이버 밴드·카카오 그룹 채팅[S2], 어플리케이션[S2], 가족[6] 순으로 자주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가자3은 출입국 사무소 직원보다 페이스북을 통해 얻은 정보가 더 정확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는 참가자 2는 양육에 대한 고민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을 때 페이스북보다 자녀를 키우는 한국 엄마가 모여 있는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그룹 채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코로나 시기에 모국으로 갈 일이 생기면 페이스북 그룹을 자주 이용했어요. 출입국 관련한 정보가 그곳에 있거든요...한번은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알려준 적도 있었어요. [참가자3]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그룹 채팅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이나 상황(자녀 교육)에 놓여 있는 한국인 부모가 있어서 자주 이용해요 [참가자2]

학과·행정 조교는 단순한 행정 업무, 건강 검진, 비자 등의 요구에 있어 좋은 정보원이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결정을 전달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조교

와 한국인 동료들 통해 얻는 정보는 대체로 부족하거나 자주 바뀌고, 의견 교류가 어렵다고 하였다[S1, 3, 5]. 참가자 3명은 외국인 직장 선배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을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팁을 얻을 수 있어서 유용했다고 밝혔다[S1, 2, 3].

학과 조교나 한국인 동료는 우리(외국인 교원)과 결정을 내리는 상급자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해요. 실제로는 저희 의견을 전달하지 않거나 정보의 흐름을 막는 방해자이죠. [S1]

(의대 학생 파업으로 인한 계절 학기 수업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어요. 행정 조교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친절하고 공감도 잘해줘요. 하지만 여전히 정보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요. [S3]

저의 (한국인) 상사는 (연구비 신청에 관련하여) 도움이 안되요. 상사가 저에게 준 정보가 틀린 정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S5]

모든 참가자는 정보추구에 있어서 한국 웹사이트(출입국 사무소, 다문화 센터, 도서관, 대학교, 기타 행정기관)가 장애 요소라고 답하였고, 6명의 참가자는 언어장벽, 직장 내 질문하기 어려운 문화 때문에 정보추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가자 2는 다문화 가정이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국인이 없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영어 버전의 대학교 웹사이트는 202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또한, 한글 버전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는 최신 정보가 있지만, 영어 버전 웹사이트는 3년 전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웹사이트는 시각적으로 정보 과잉이에요. 항상 깜빡거리고 공지 같은 게 있어요. 첨부파일에 도달하려면 클릭도 여러 번이 필요해서 피로해요...파일도 대부분 한국 컴퓨터(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열 수도 없어요. [S5]

한국인들은 정보를 약간 다르게 조직해요. 원하는 진짜 정보는 얻기 힘들고, 대체로 대기실에서 볼 수 있는 팸플릿 정보 수준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S4]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착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자는 출국 전에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주로 한국인 유학생 친구,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구, 신문, 대학가 한국 식당 등을 통해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다. 특히 한국 내 구직이나 한국인과 결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참가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비자 발급과 한국의 일상생활이었고, 일상생활 정보에는 언어장벽 극복 방법, 원어민 강사의 일상생활, 커뮤니티, 주거 정보 등을 포함한다. 직장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근무지, 근무 조건, 근무 환경 등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는 취업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한국의 위계질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참가자가 주로 활용한 정보원은 대행사 직원, 한국인 친구, 가족, 여행 서적, 개인 블로그,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유튜브가 있었다. 대체로 비공식 정보원(개인 블로그, 유튜브, 한국인 친구, 가족)에서 얻은 정보는 만족했지만,

공식 정보원(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 여행 서적, 대사관)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였다. 정보추구의 주요 장애요인은 정보 부족과 언어장벽이 언급되었다. 특히 한글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과 영어로 작성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 참가자는 정착했다고 느낀 시점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년 6개월로 다양했고,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정착했다고 느꼈다. 정착 기간이 짧았던 참가자는 도움을 주는 동료나 가족이 옆에 있었고, 반면에 주변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착이 오래 걸렸다고 응답하였다. 참가자는 일상생활에서 기초생활 정보, 의료시설, 금융 거래,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직장생활에서 직장문화, 한국어, 대학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주요 정보원은 외국인 친구 및 동료, 외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외국인 페이스북 그룹, 가족 등이었다. 특히 외국인 친구 및 동료가 중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반면,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는 정보 접근성과 최신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참가자는 언어장벽을 정보추구의 장애요인으로 꼽았고, 일부는 언어보다 문화적 차이나 선입견이 더 큰 장애물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공식적인 정보 채널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단계에서 참가자는 의료시설, 비자 발급, 교육 시설, 보험, 대출, 전입 신청 등에 관한 일상생활 정보요구가 있었다. 직장생활에서는 주로 대학 시스템과 직장문화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었다. 참가자는 외국인 페이스북 그룹이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페이스북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유용했고, 때로는 공식 기관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한국 정부 웹사이트가 정보추구의 장애 요소라고 답하였다. 대부분은 영어 버전의 웹사이트가 한국 버전의 웹사이트에 비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 과잉, 파일 호환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언어장벽, 직장문화도 정보추구의 어려움으로 언급되었다.

5. 논의 및 제언

이번 장에서는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한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추구행위를 앞서 언급한 연구질문에 따라 정보요구, 정보원, 장애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국인 전임교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요구는 정착단계별로 변화한다. 외국인 전임교원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 후, 한국 문화, 일상 및 직장생활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한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교통과 의료시설 같은 기초생활 정보가 필요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자녀 교육, 재난, 보험, 대출, 연구 지원금, 대학 시스템 등 긴급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요구가 있다. 입국 전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정보요구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외국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요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 대학 시스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적응과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수의 학생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장기 거주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대출, 보험, 자녀 교육, 국가적 재난 상황 등과 같은 요구는 단기 거주 외국인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덜 언급된 외국인 전임교원만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전임교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식 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국 전과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외국인 전임교원도 타 직종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 생활, 지역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요구하므로, 출입국 사무소, 대학교, 채용 대행사, 대사관 홈페이지 등 공식 정보원이 이를 제공하여 입국 준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교통, 쇼핑, 식음료, 의료시설과 같은 기초생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초기 정착 단계부터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정보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대학 내 관행에 대한 이해, 연구 지원금 신청 절차, 교육 및 행정 시스템 적응과 같은 특수한 요구는 위에 언급된 정보원에서 제공하기 힘들고, 일반적인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기 정착 단계까지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외국인 전임교원의 직업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보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뒷부분에서 하도록 한다.

두 번째,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정보요구는 정착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수상과 장임숙(2008)의 연구에서 이주노동자가 이주 초기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던 결과와 유사하다. 외국인 전임교원 역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요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감소가 단순히 언어 소통이 원활해진 결과라기보다는, 언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나 기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 참가자들은 모든 정착 단계에서 언어장벽을 주요 장애 요소로 지적하였고, 이는 한국어 학습의 동기 요인과 동기가 약화되는 시점, 그리고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외국인 전임교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Kennan et al.(2011)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정착 직후 약 6개월은 새로운 환경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언어 교육과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국인 전임교원의 초기 정착 시기에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의 정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초기

정착 단계에서 교통수단과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는 방안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임교원이 직장 생활에서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적 역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외국인 전임교원의 중요한 정보원은 외국인 친구와 동료이다. 이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타 직종 외국인 대상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 결과로, 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 전임교원 역시 외국인 친구, 동료, 외국인 커뮤니티를 정보를 얻는 주요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친구와 동료의 도움을 받은 참가자는 그렇지 못한 참가자에 비해 정착했다고 느낀 시기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와 동료를 통해 정서적 공감과 조언을 얻는 것이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 대학 내 관행과 근무 환경, 지역별 생활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 단계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변 편의 시설이나 교통시설에 대한 정보요구는 근무지와 주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 기관에서는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주니어 외국인 교원을 위해 시니어 외국인 전임교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멘토 역할을 맡은 시니어 외국인

전임교원은 자신이 겪었던 실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주니어 교원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행정 시스템, 직장 문화, 행정 절차, 영어 소통이 가능한 의료시설, 공항 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 방법, 음식점 및 지역 환경에 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원 중 5명은 시니어 교원의 도움을 통해 첫 학기 업무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별로 상이한 생활 및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세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지자체와 대학 도서관은 외국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및 학문적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세미나는 외국인 전임교원이 직면하는 학문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교수 및 연구 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세미나는 학문적 정보 교류의 장으로 기능 외에도, 외국인 전임교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적 소통의 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임교원이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 활동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외국인 전임교원은 정착 단계 전반에 걸쳐 영어판 국내 웹사이트의 낮은 최신성 및 접근성 때문에 정보추구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모든 참가자가 출입국 사무소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외국인 전임교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식정보원의 경우,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되, 학술적 혹은 전문적 단어 사용을 지양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어 게시물과 외국어로 번역된 게시물을 함께 업로드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정부의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에 따라 국내 대학이 외국인 교원 채용과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은 차별과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일상 및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은 외국인 교원의 정착 단계별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교원이 한국 생활에 정착해 나가는 단계별로 일상과 직장생활에서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참가자의 정보요구는 출국 전에는 한국 문화, 직장, 일상 등의 일반적인 정보요구가 있거나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지만, 정착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관련 및 관심 여부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정보요구가 있었다. 둘째,

참가자에게 외국인 친구·동료가 중요한 정보원이었지만, 자녀 교육, 연구 신청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방식과 경험이 필요했다. 또한, 참가자는 외국인 네트워크 유무에 따라 한국에 정착했다고 느낀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언어 장벽, 웹사이트 문제, 직장 문화 등이 정보탐색의 장애요소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 수가 적어 외국인 교원의 정보이용행위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고, 참가자의 국적이 영어권 또는 유럽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출신의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험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결정적 사건기법은 참가자가 과거의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서술하기에 응답자에 의해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소규모 표본을 통해 외국인의 정보요구 및 정착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김성호, 2015; Jeong, 2004; Shoham & Strauss, 2008),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심층적 데이터 수집과 맥락적 이해를 중점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외국인 전임교원의 정보추구행위를 다룬 기초 연구로서, 이들의 직업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 서비스 개발 및 정책 설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 교원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교원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 정보 서비스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통계서비스 (2024).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1999-2023). 한국교육개발원.
출처: <https://kess.kedi.re.kr/index>
- 김성호 (2015). 한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콘텐츠연구*, 18, 255-297. <http://doi.org/10.15400/mccs.2015.04.18.255>
- 김일규 (2023, 09. 19). [교수의 소리] 외국인 교수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교육플러스*.
출처: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2>
- 박나은 (2023, 08. 13). [단독] 대학들 외국인교수 뽑아만 놓고 '나몰라라'. *매일경제*.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080700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비자 내비게이터 ver 2022. 12.
- 송인영, 변기용 (2022). 외국인 교원의 채용과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디커플링 연구: 제도혁신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5(4), 1-31.
- 심미경 (2014). 외국인 교원들의 한국 대학 생활 경험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3), 171-190.
<http://doi.org/10.14328/MES.2014.09.30.171>
- 윤정원 (2021).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4), 231-250. <http://doi.org/10.3743/KOSIM.2021.38.4.231>
- 이병식, 이인서, 전석진, 신정철 (2019). 국내 외국인 교수의 연구 수월성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7(3), 33-58. <http://doi.org/10.22553/keas.2019.37.3.33>
- 이수상, 장임숙 (2008).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43-268.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243>
- 장임숙, 이수상 (2009).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욕구의 우선순위 분석. *한국행정논집*, 21(1), 231-261.
- 한송이, 신윤미 (2020). 외국인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37(4), 313-339. <http://doi.org/10.24211/tjkte.2020.37.4.313>
- Fisher, K. E., Marcoux, E., Miller, L. S., Sánchez, A., & Cunningham, E. R. (2004). Information behaviour of migrant Hispanic farm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Pacific Northwest. *Information Research*, 10(1), paper 199.
- Jeong, W. (2004). Unbreakable ethnic bon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Korean 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3), 384-400. <https://doi.org/10.1016/j.lisr.2004.04.001>
- Kennan, M. A., Lloyd, A., Qayyum, A., & Thompson, K. (2011). Sett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social inclusion.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 42(3), 191-210. <https://doi.org/10.1080/00048623.2011.10722232>
- Lloyd, A. (2014). Building information resilience: How do resettling refugees connect with health information in regional landscapes - implications for health literacy.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45(1), 48-66. <https://doi.org/10.1080/00048623.2014.884916>
- Lloyd, A., Lipu, S., & Anne Kennan, M. (2017). On becoming citizens: Examining social inclusion from an information perspective.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47(4), 304-315. <https://doi.org/10.1080/00048623.2016.1256806>
- Mehra, B. & Bilal, D. (2007).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information seeking strategies.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f CAIS/Actes du Congrès Annuel de l'ACSI*. <https://doi.org/10.29173/cais233>
- Rampin, R. & Rampin, V. (2021). Taguette: Open-source qualitative data analysis. *Journal of Open Source Software*, 6(68), 3522. <https://doi.org/10.21105/joss.03522>
- Shoham, S. & Strauss, S. K. (2008). Immigrants' information needs: Their role in the absorption process. *Information Research*, 13(4), 13-4.
- Sin, S. C. J. & Kim, K. S.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07-116. <https://doi.org/10.1016/j.lisr.2012.11.006>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https://doi.org/10.1016/S0147-1767\(99\)00014-0](https://doi.org/10.1016/S0147-1767(99)00014-0)
- Yoon, J. & Chung, E. (2017).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u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Libri*, 67(2), 119-128. <https://doi.org/10.1515/libri-2016-0048>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24). Annual ratio of foreign full-time faculty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1999-202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vailable: <https://kess.kedi.re.kr/index>
- Han, Songyi & Shin, Yunmi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measures to improve job performance of foreign facul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7(4), 313-339. <http://doi.org/10.24211/tjkte.2020.37.4.313>

- Jang, Imsook & Lee, Susang (2009). A priority analysis on social needs of migrant workers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1(1), 231-261.
- Kim, Ilgyu (2023, September 19). [Professor's voice] Let's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professors'. *Education Plus*. Available: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2>
- Kim, Seongho (2015). The conception and factors that affect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8, 255-297. <http://doi.org/10.15400/mccs.2015.04.18.255>
- Korea Immigration Service & Ministry of Justice (2022). *Visa Navigator ver 2022.12*.
- Lee, Soosang & Jang, Imsook (2008). Social network and social services accessibility of migrant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243-268.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243>
- Park, Naeun (2023, August 13). [Exclusive] Universities Hire Foreign Professors but Leave Them Unattended. *Maeil Business News Korea*. Available:
<https://www.mk.co.kr/news/society/10807005>
- Rhee, Byungshik, Lee, Inseo, Jeon, Seokjeon, & Shin, Jungcheol (2019). Analysis on the research excellence of foreign professor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7(3), 33-58. <http://doi.org/10.22553/keas.2019.37.3.33>
- Sim, Mikyung (2014). A study of foreign professors' perceptions toward their lived experience in Korean university.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7(3), 171-190.
<http://doi.org/10.14328/MES.2014.09.30.171>
- Song, Inyoung & Byun, Kiyong (2022). A study on decoupling in the process of recruitment and role performance of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ics: focusing on the role of institutional entrepreneur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5(4), 1-31.
- Yoon, Jungwon (2021). An exploratory study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4), 231-250. <http://doi.org/10.3743/KOSIM.2021.38.4.231>